

옵셔널 체이닝과 빠른 종료

우리는 앞서 옵셔널(8장)에 대해 알아보았을 뿐 옵셔널을 제대로 사용한 예제를 다루지는 않았습니다. 또 지금까지는 **옵셔널 체이닝** Optional Chaining을 소개하지 않았는데 옵셔널 체이닝은 여러 값이 중첩된 형태를 피어야 제 몫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. 옵셔널을 이해하지 못하고 스위프트를 사용한다면 스위프트의 절반도 이해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. 옵셔널 체이닝이 없다면 옵셔널은 정말로 귀찮고 또 귀찮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. 이번 장에서는 옵셔널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셔널 체이닝과 **빠른 종료** Early Exit 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14.1 옵셔널 체이닝

옵셔널 체이닝은 옵셔널에 속해 있는 nil일지도 모르는 프로퍼티, 메서드, 서브스크립션 등을 가져오거나 호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입니다. 옵셔널에 값이 있다면 프로퍼티, 메서드, 서브스크립트 등을 호출할 수 있고, 옵셔널이 nil이라면 프로퍼티, 메서드, 서브스크립트 등은 nil을 반환합니다. 즉, 옵셔널을 반복 사용하여 옵셔널이 자전거 체인처럼 서로 꼬리를 물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옵셔널 체이닝이라고 부릅니다. 자전거 체인에서 한 칸이라도 없거나 고장 나면 체인 전체가 동작하지 않듯이 중첩된 옵셔널 중 하나라도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nil을 반환합니다.